

“日 오염수 시료 여러 탱크서 채취, 균질작업 거쳐”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첫 브리핑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 해명 “특별법 제정 논의는 시기상조” 일본 선박 ‘평형수 교환’ 대치

정부는 1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첫 브리핑을 열고, 오염수와 관련된 사실 확인에 나섰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했다’는 보도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라며 여러 개의 오염수 탱크에서 채취한 뒤 “10분간 서로 혼합해 IAEA 참관하에 채취했다”고 밝혔다.

다핵종저거설비(ALPS)로 정화한 뒤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배 이상 방사성 물질이 오염수에서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박 차장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서는 “도쿄전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해수에 희석한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약 2주간 해양방출 설비 시운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브리핑에 나선 허균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방사선 노출량과 관련해 “병원에서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면 0.1 mSv 정도”라고 설명하며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가 희석된

채 해양방출된 이후 이로 인해 생기는 피폭량은 0.00003mSv”라고 했다.

최근 대두된 ‘오염수 증발’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나가면 환경감사가 용이하지 않다. 공기 포집, 감시기 설치 등의 이슈가 있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며 “정부는 현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과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선박이 ‘평형수 교환’을 이유로 오염수를 우리 해양에 버리지 않도록 대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정부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고, 선박 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오염수 방류 시점부터는 지금까지 2개현에 대해 시행하던 평형수 교환조치를 6개현으로 확대해 관할 수역 밖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교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배출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오염수 방류’ 한국 반대 84%·일본 찬성 60%

한·일 신문 공동 여론조사

한일 정상이 ‘서틀외교’를 복원해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선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본 국민은 80% 이상인 반면 한국은 50%에 못 미쳤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도 일본 국민 60%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한국 국민은 반대 의견이 84%로 더 높았다.

15일 요미우리신문이 한국일보와 지난 달 26~28일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사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잇단 정상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에서 ‘평가한다’가 84%로 ‘평가하지 않는다(13%)’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한국에서는 ‘평가한다’ 47%, ‘평가하지 않는다’ 49%로 찬반이 팽팽했다. 과거사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윤 대통령의 자세에 대해서도 평가한다는 응답은 일본에서 85%였지만 한국에서는 50%에 그쳤다.

역사인식 문제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경제협력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본 70%, 한국 64%에 달했다.

일본 정부가 올 여름부터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처리수(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 국민의 인식차가 뚜렷했다.

일본에서는 찬성 60%, 반대 30%로 정부 결정을 지지하는 여론이 두 배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찬성 12%, 반대 84%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공동 여론조사는 한일 모두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일본은 지난달 26~28일, 한국은 지난달 26~27일 각각 컴퓨터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로 임의로 전화를 거는 RDD 방식으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도 400억원대 수산양식 클러스터 유치 성공

해양수산부 공모 해남 최종 선정

전남도가 400억원대 규모의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전남도는 15일 해남군이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어촌활력증진과 스마트 어업을 통한 수산업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 사업은 양식 기자재 산업 육성과 양식업의 기계화·현대화를 위해 추진한다. 클러스터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425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3만3058㎡

부지에 연면적 1만1200㎡ 규모로 조성한다.

클러스터엔 수산양식 연구지원센터와 기자재 생산단지, 육상·해상 실증 테스트 베드, 물류유통 홍보센터 등이 집적화 된다.

연구센터는 기자재 제조기업의 시험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기자재 생산단지’에선 입주기업의 생산기술과 생산 활동을 돕게 된다.

‘물류·홍보센터’에선 생산기자재 유통과 애프터서비스(AS), 우수제품 홍보관을 운영한다.

최항지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XPERON

엑스페론

Yes, I Strive balanced

밸런스 라인